

고교교육 미래포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

**일시** : 2018년 10월 6일(토) 14:00

**장소** : 세종특별자치교육청 대강당

**주최** : 시도교육감협의회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

## 진행 순서

- 14:00 ~ 14:20    개회, 참가자 소개, 환영사, 축사
- 14:20 ~ 15:20    주제 발표 1 : 김응현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주제 발표 2 : 진동섭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
- 15:20 ~ 15:30    중간 휴식
- 15:30 ~ 16:10    지정 토론 1 : 이효현  
                  지정 토론 2 : 홍순상  
                  지정 토론 3 : 천희완  
                  지정 토론 4 : 김정빈
- 16:10 ~ 16:50    질의·응답 및 토론
- 16:50 ~ 17:00    마무리, 폐회

## 글 순서

### □ 인사말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 □ 주제 발표

- **김응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 **진동섭**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
  -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

### □ 지정토론

- **이효현**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연구부장
  -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한 고교학점제를 꿈꾸며
- **홍순상** 세종 양지고등학교 1학년
  -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교학점제
- **천희완**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사
  - 학점제 도입과 실시는 학교 변화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 **김정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고교학점제 10년 플랜’ 합의를 제안하며

인사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 교육 혁신의 기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김 응 현

### 들어가며

철학에서 다루는 존재와 무를 ‘있음’과 ‘없음’, 진리와 허위를 ‘참말’과 ‘거짓말’, 선과 악을 ‘좋음’과 ‘나쁨’으로 쉽게 표현하면 ‘참말’과 ‘거짓말’이 쉽게 가려지고 ‘좋음’과 ‘나쁨’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나는 그때 비로소 참세상과 좋은 앞날을 꿈꿀 수 있다는 철학자 윤구병의 가르침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참말’과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다. ‘참말’은 무엇인 것을 무엇이냐고 하고, 무엇이 아닌 것을 무엇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다.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도 참말이다. 반대로 무엇인 것을 무엇이 아니냐고 하고, 무엇이 아닌 것을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또한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좋음’과 ‘나쁨’도 구분할 수 있다.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없을 것이 있고, 있을 것이 없으면 나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교육이, 특히 고교 교육에서 참말과 거짓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의 우리 고교 교육에서 숨기지 않는 진짜 모습, 참말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진짜 고교 교육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의 고교 교육은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인 것을 이라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 즉 참말을 하고 있는가? 반대로 고교 교육에서 숨기고 있는 가짜 모습, 거짓말은 무엇인가? 지금의 고교 교육에서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또한 고교 교육에서의 참말과 거짓말은 좋음과 나쁨으로 연결된다.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좋은 고교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없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반대로 우리 고교 교육에서 없어야 하는데 있어서 나쁜 것,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나쁜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는 교실 속 학생들의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파악한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포함될 것이다.

나는 매우 복잡한 교육 현상과 현실에 대해 모두 다룰 능력과 자신은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이 아닌 비전으로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에 관해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듯싶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참말과 거짓말을 가려내고,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 혁신의 기제임을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데 주춧돌, 디딤돌, 걸림돌을 제시하여 보다 고교학점제를 힘 있게 추진하며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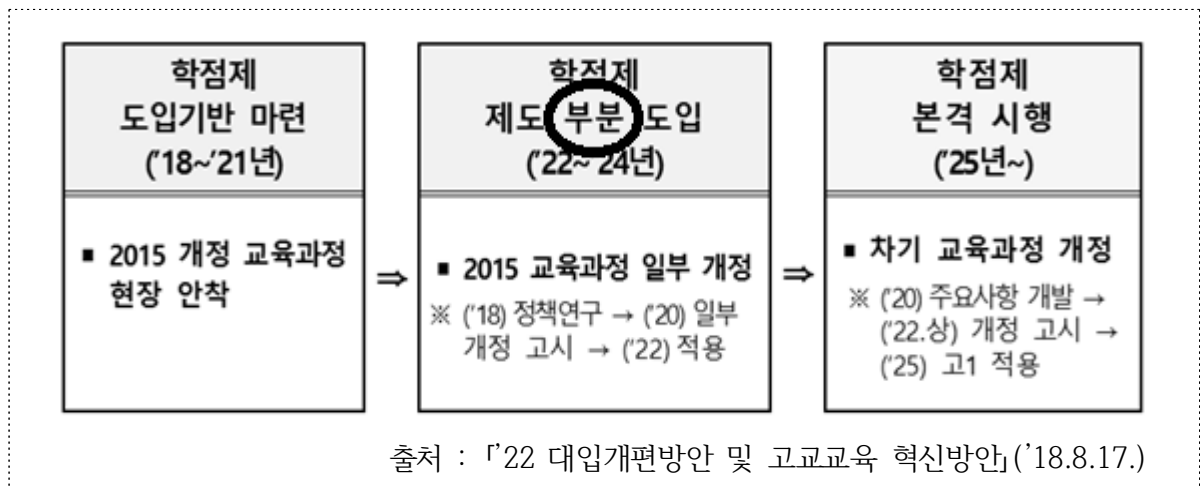
펼치자고 주장하고자 한다. 나는 여전히 공동체의 힘,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며, 고교 학점제를 통해 만들어 갈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중요한 혁신 가치를 인식한다.

### 1. 팩트 체크 :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참말과 거짓말

팩트 체크, 사실의 차원을 묻고자 한다. 워낙 많은 지식정보사회에 살다 보니 때로는 그 많은 정보로 인해 숨이 가쁘기도 하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해야만 한다. 즉 참말과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 중 하나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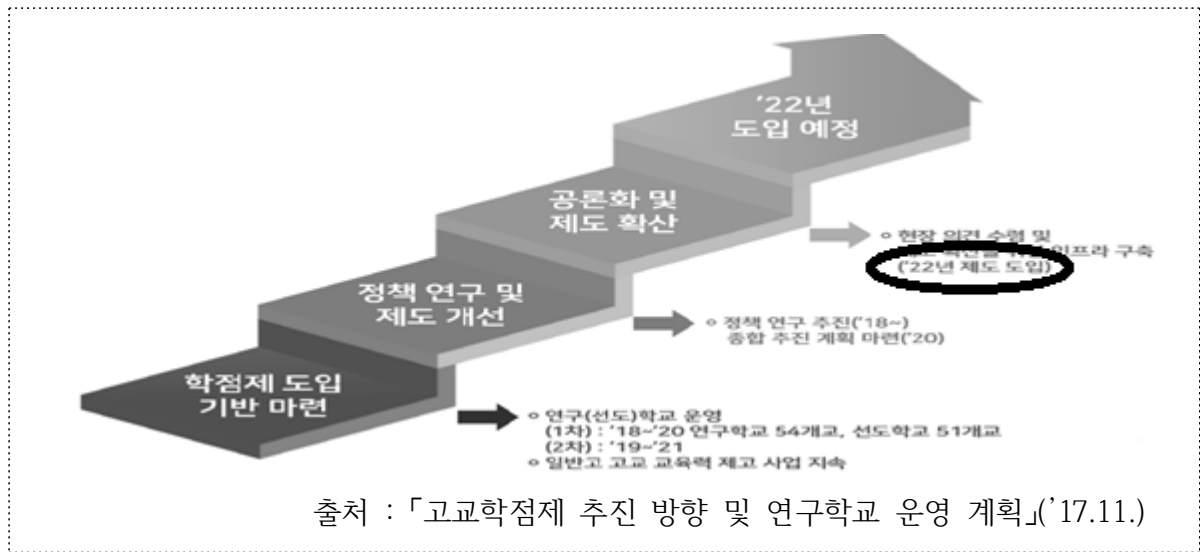
#### 가. 2022년, 고교학점제 연기인가? VS 지속적 추진인가?

지난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발표와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연기되었다는 소문이 났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이 소문의 발단은 [그림 1]에서 연유되었다.



[그림 1]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2018)

[그림 2]와 같이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서 제시된 2022년 제도 도입이 [그림 1]에서와 같이 2022년에는 제도 부분 도입으로, 2025년에 제도 본격 시행으로 늦추어졌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2]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2017)

이와 관련한 소문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교학점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 정책이 연기되었는데 연구학교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가,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를 다시 조정해도 되는가 하는 등의 문의가 있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과장 선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지연되었으니 고교학점제 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단위학교에서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좌절된 대입 정책과 맞물려 고교학점제 정책이 물건너 갔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정 정도는 과장된 목소리 일 수 있으나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첫 시작부터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책 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제3차 정책 포럼(9.6.)」이 추진되는 부산 벡스코 인근에서 급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관리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교학점제 추진에 이상이 없음을 밝혔고, 「고교교육 혁신방향(고교학점제) 안내」 공문(9.18.)을 안내했으며 아래 [그림 3]과 같이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가 연기 또는 유예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는 연기·유예되지 않았습니다.

- 「'22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18.8.17.)에 제시된 학점제 도입 일정은 작년 11월 발표된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 \* 교육과정 개정 범위와 시기,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대상 및 적용 시점, 학점제의 단계별 도입 일정 등
- 고교학점제 도입 자체를 연기하거나 유예한 것이 아닙니다.

<고교교육 혁신방안 주요 내용('18.8.17.)>

단계	적용 학년도	교육과정	평가
1	'18.~'21.	· '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18 고1부터 적용)	·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19년 고1부터 적용, '22 대입)
2	'22.~'24.	·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적용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3	'25.~	·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 적용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전 과목 대상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25년 고1부터 적용)

출처 : 「고교교육 혁신방향(고교학점) 안내」('19.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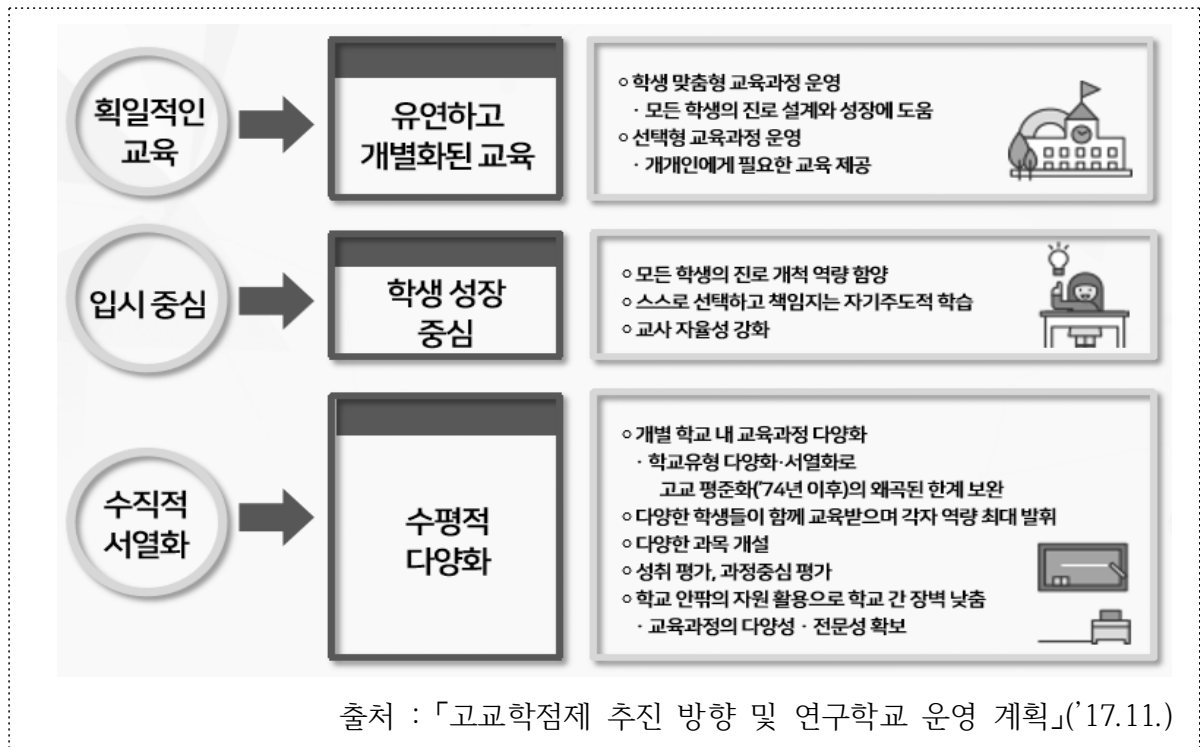
[그림 3]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관련 설명 자료

교육부가 부리나케 수습을 하였지만 이를 바라보며 나비 효과를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N.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나비 효과는 로렌츠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상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져서 결국 그 결과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명명하였다. 흔히 알고 있는 비유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2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이라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만든 엄청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한 '침소봉대(針小棒大)'이나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읽어야 한다.

크게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따른 속의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로 제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에 대한 적지 않은 실망감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에 대한 혁신 의지보다는 어느 정부도 대입제도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혁신은 어려울 것이라는 스스로의 좌절감의 표현이 고교학점제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나 다른 교육정책과 달리 [그림 4]와 같이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변화, 즉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에 익숙한 기존 학교의 저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림 4]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게다가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평가제도, 졸업제도 등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까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사 역량을 요구하는 만큼 교사의 저항 또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작은 용어 사용 하나조차도 제대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2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18.8.17.)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까지 1단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고교학점제가 명확히 방향을 잡고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현행)]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감자수)	석차 등급	과목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감자수)	성취수준 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출처 : 「'22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18.8.17.)

[그림 5] 진로선택과목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당장 [그림 6]과 같이 2019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내용만 보아도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중심으로 한 고교학점제 추진의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순	항목	현행	개선	
1	인적사항	·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설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 학적사항과 통합 · 부모정보(부모 설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2	학적사항	·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 인적사항과 통합	
3	출결상황	· 질병·무단·기타	·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4	수상경력	·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 실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기수 제한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과)	· 대입자료로 제공	·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 사항	·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참여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7	창의적 재능 활동 상황	봉사 활동	·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활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 (소논문) 동아리, 교과제특련에 (논문명, 참여기간, 참여인원)기재 ·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오디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 기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 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 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 (대입자료로 미제공)
		가계부 납기 누기	·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 NIS 활용 전산 기재 관리 권역	·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 1,700자 · 누가기록 기재 관리 방법 시도 위임
8	교과학습 발달 상황	· 발과후학교/발과후학교 활동수집내용 기재 ·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 발과후학교 활동수집내용 미기재 · 현행 유지	
9	자유학기 활동 상황	· 특기사항 입력	· 현행 유지	
10	독서 활동 상황 (과·교)	· 제목과 저자만 입력	· 현행 유지	
11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 기재분량: 1,000자 ·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 기재분량 축소: 500자 · 누가기록 기재 관리 방법 시도 위임	

출처 : 「'22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18.8.17.)

[그림 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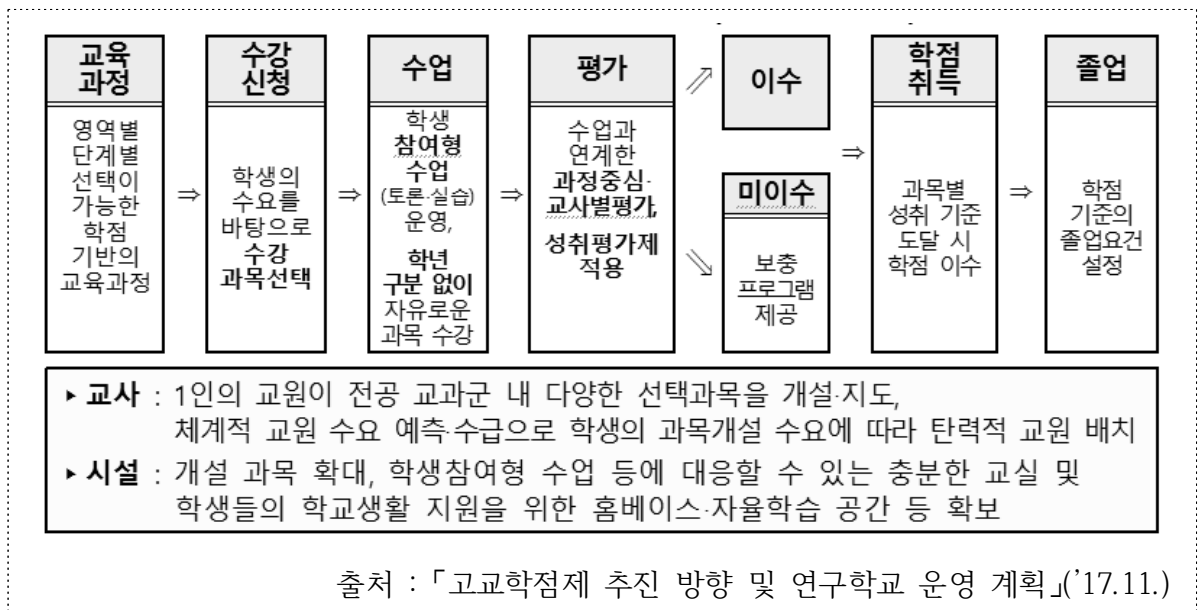
무엇보다 고교학점제 제도가 도입되는 2022년에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도 마련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모든 학교에 동일한 학점제라는 제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2022년에 일부 학교는 학점제를, 일부 학교는 단위제를 활용하는 형태의 부분적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형태의 부분적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팩트 체크를 하자면, 고교학점제 추진 연기에 대한 소문은 거짓말이며,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17.11.) 이후 「’22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18.8.17.)은 보다 구체화하여 고교학점제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음이 참말이다.

### 나. F학점 그리고 (대학)학점제 VS 고교학점제

초기 논의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지점들이 남는다. (대학)학점제와 고교학점제는 엄연히 다르다. 학점제 앞에 ‘고교’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학점제를 생각하면 먼저 F학점이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성적에 관계없이 수업일수에만 도달하면 진급과 졸업을 하는 제도 하에서 학점제를 도입하여 F학점을 받는 학생에게 재수강(재이수), 유급 또는 졸업유예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림 7]과 같이 고교학점제 최종 완성 모형에서도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F학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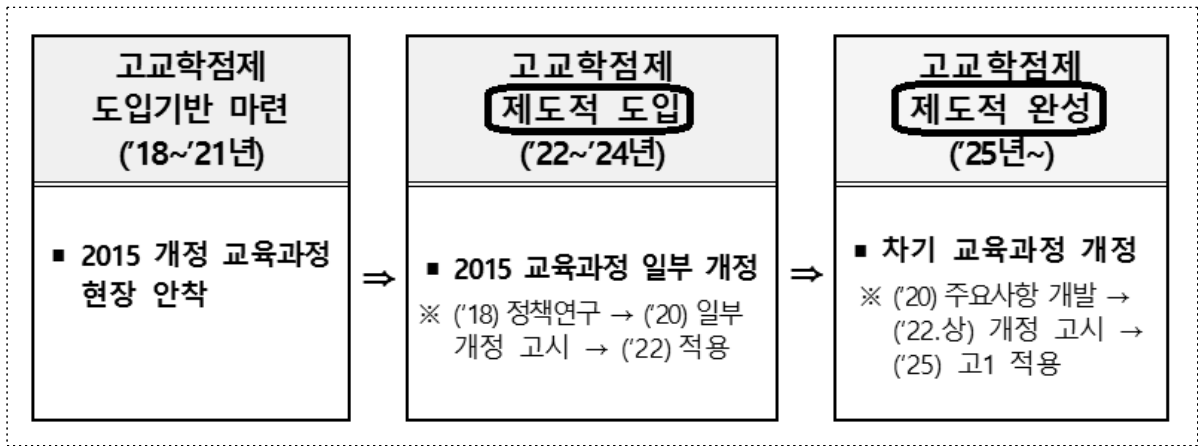
[그림 7]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최종 완성 모형)

한 가지 더,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대학)학점제처럼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자. 솔직히 말하면 이는 희망이고 환상이다. 먼저 대학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고를 수 있었는지 옛 일을 떠올려보자. 그렇지 못했다. 고등학교보다 제도적 여건이 좋은 대학조차 그

러하지 못했다. 교원 수급(교수와 강사의 수)과 학교 시설(강의 공간 등)을 고려한 현실 상황에서 (대학)학점제가 운영되는 만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도 대학입시를 포함해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고려해야 한다.

**다. 제안 :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용어 수정 - 제도적 부분 도입에서 제도적 도입으로**

팩트 체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오해를 일으킨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용어를 [그림 8]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학점제라는 용어를 명확히 고교학점제로 제시하고, 2022년 ‘제도적 부분 도입’을 ‘제도적 도입’으로, 2025년 ‘본격 시행’을 ‘제도적 완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그림 8]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수정

**2. 고교학점제의 이해, 복잡한 고교학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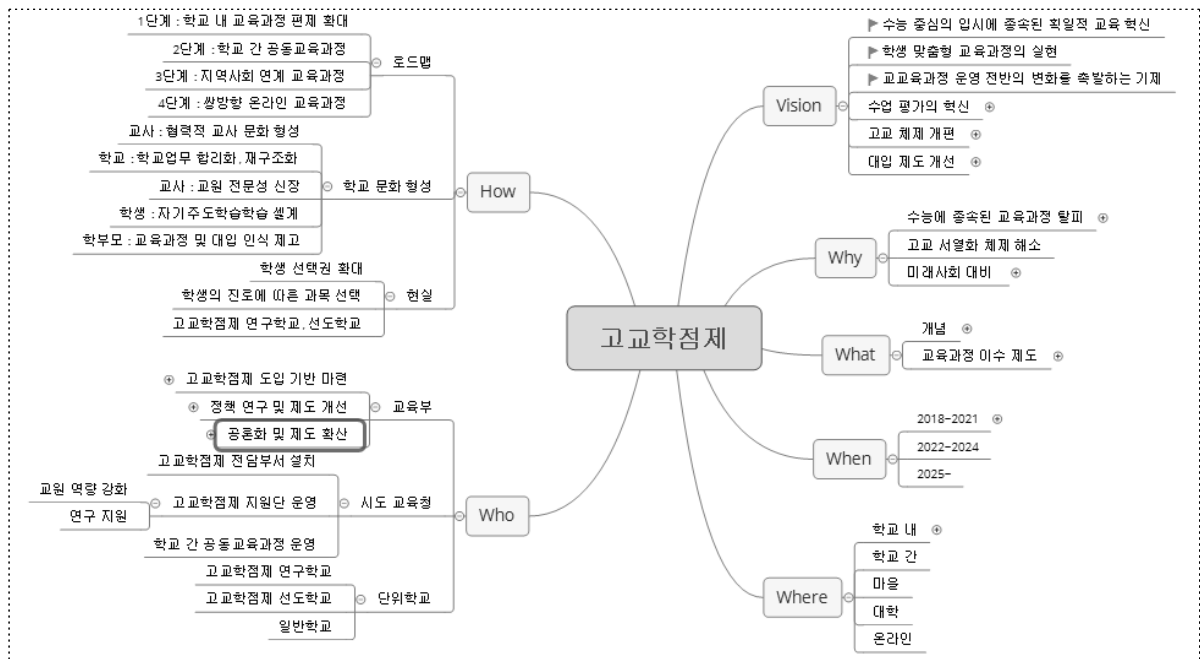
고교학점제는 매우 복잡한 상황과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자체의 복잡성, 고교학점제 추진의 핵심인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복잡성,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제도 및 시스템의 복잡성을 살펴봄으로써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가. 고교학점제 자체의 복잡성**

고교학점제의 비전은 원대하다. 수업·평가 혁신,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중심의 입시에 종속된 획일적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 중국에는 교육의 정점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부합되는 최적의 교육과정, 즉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다는 비전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잦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이상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현해 보고자 하는 혁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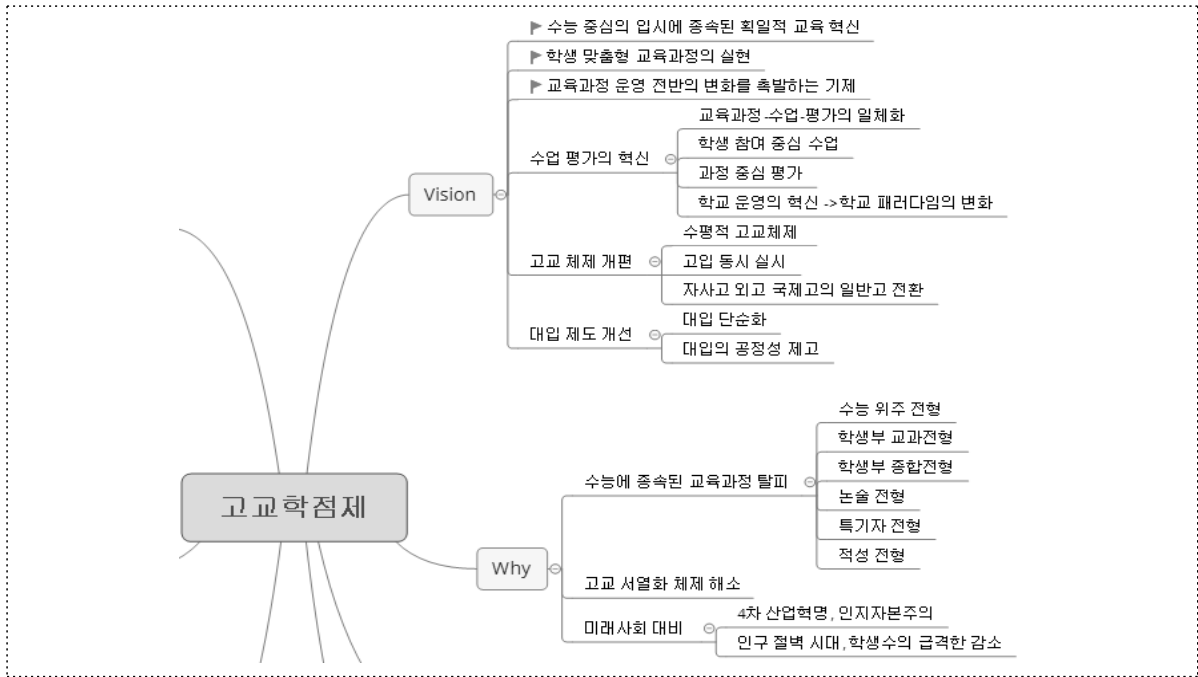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비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배경과 그 이유 또한

명확해야 하며, 고교학점제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생소함을 극복해야 하고, 교육과정 전반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 영역을 손대야 하는 것인 만큼 그 추진 로드맵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 교육이 단위학교를 넘어 학교와 학교 간에, 지역과 마을로 확장되는 만큼 고교학점제가 실현되는 공간의 의미도 사뭇 달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천 방법 또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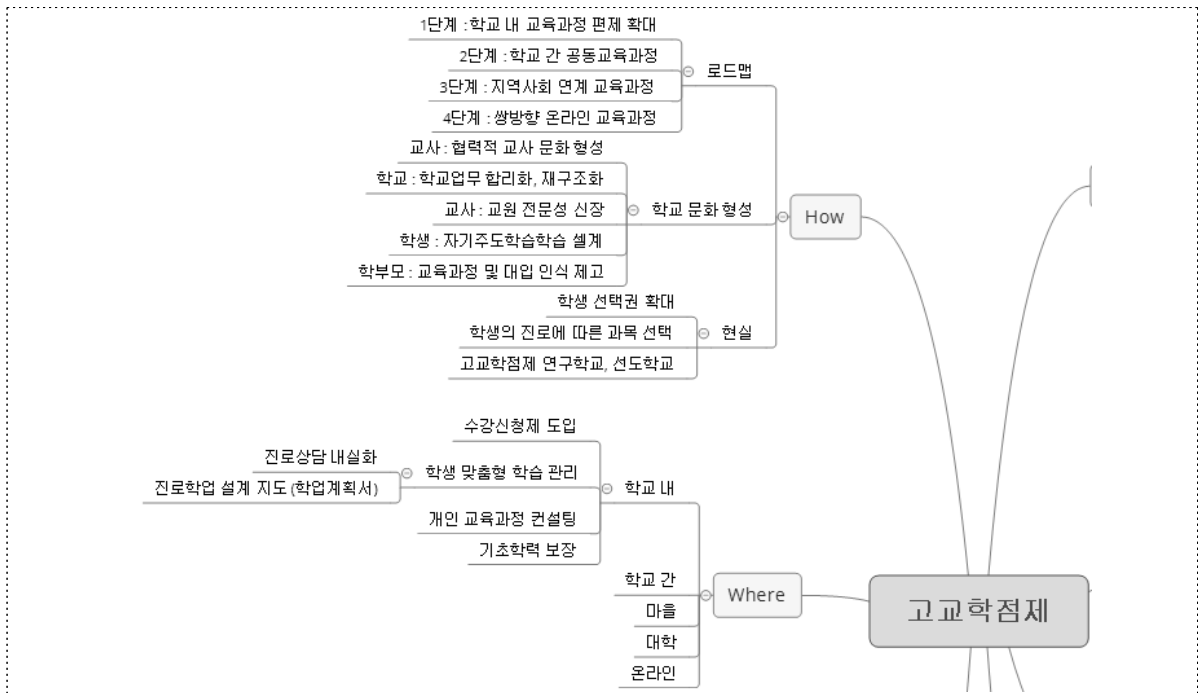
[그림 9] 고교학점제 자체의 복잡성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평가제도, 졸업제도 등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림 10]과 같이 고교학점제 비전과 추진 배경 또한 복잡하다.



[그림 10] 고교학점제 비전과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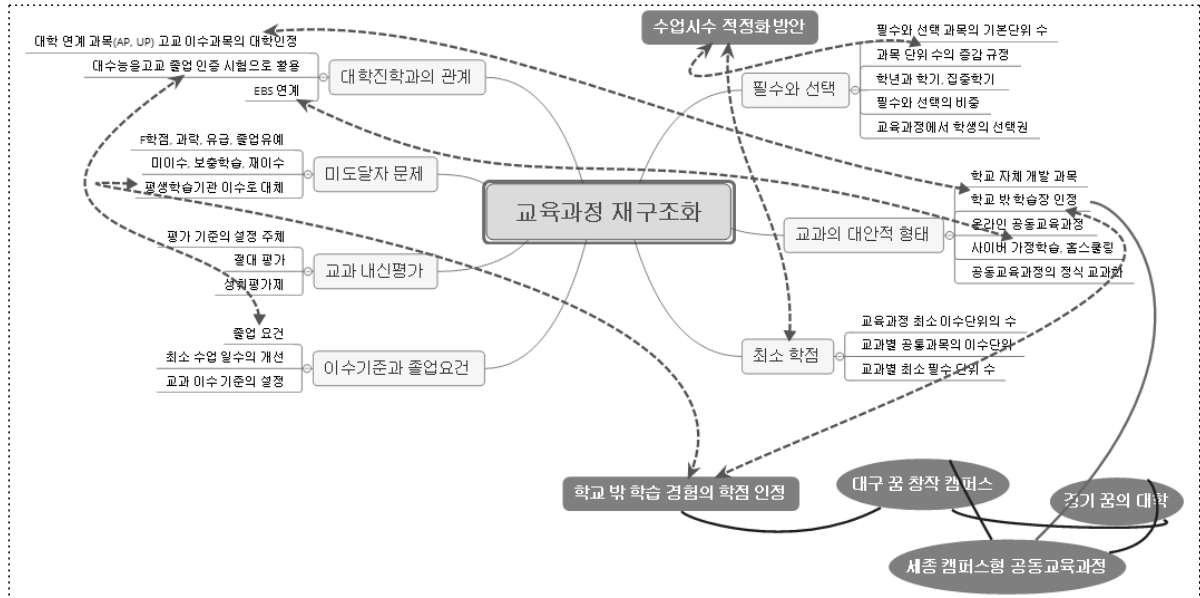
고교학점제는 추진 단계에서도 제시하였듯이 학교 내 교육과정 편제 확대를 시작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까지 학교 내, 학교 간, 지역과 마을, 대학 등 더 넓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만큼 그 추진 장소와 방법 또한 복잡하다.



[그림 11] 고교학점제 추진 방법

## 나.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복잡성

고교학점제 추진의 핵심인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이 그 복잡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12]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복잡성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따른 속의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로 제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에 따라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지금은 대입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교교육 혁신 방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고교교육 혁신 방향의 핵심이 고교학점제이다.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과제로 단위학교에서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확대가 본격화되면 교육과정 재구조화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개 연구기관에서 교육과정, 평가, 교원, 시설, 학교문화 등 분야별 정책연구가 추진 중이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을 통해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차 정책 포럼(6.1)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와 관련한 검토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과 시설 관련 쟁점을 고찰하였다. 2차 정책 포럼(7.27)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과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3차 정책 포럼(9.6)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방식(국내외 사례)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교육평가 쟁점 및 평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4차 정책 포럼에서는 교원 수급과 시설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결과의 정점에는 교육과정 재구조화가 놓여 있다.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편제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연계하여 일반고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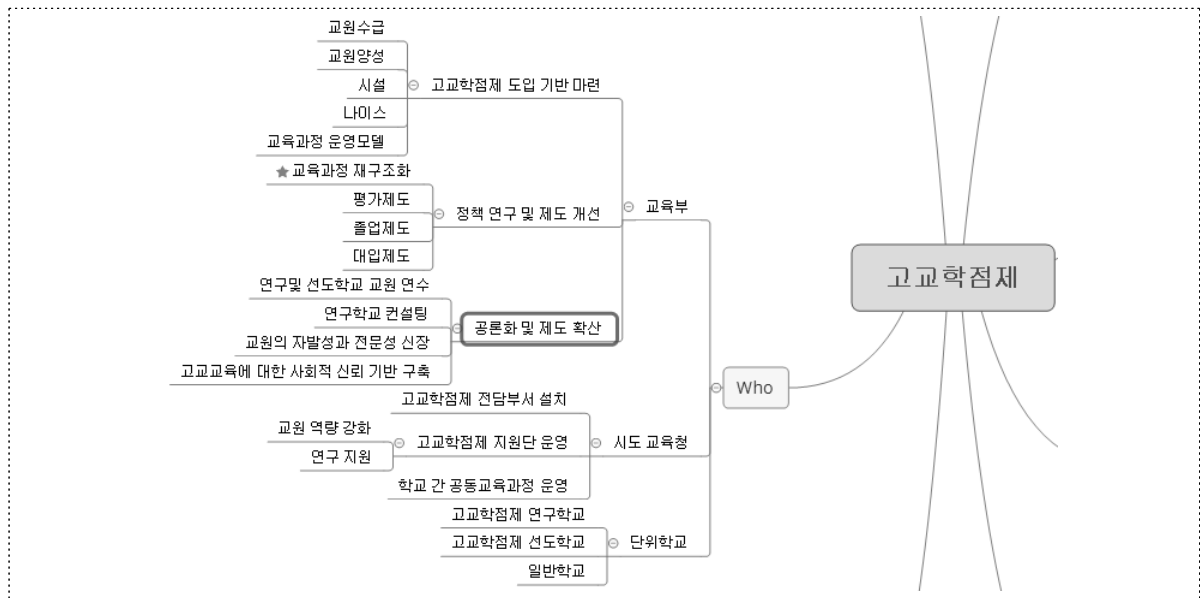




교육과정 확장형의 고민은 학교 밖 학습 경험의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육청 ‘꿈의 학교’, 대구교육청 ‘꿈 창작 캠퍼스’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마을 연계형, 대학 연계형 등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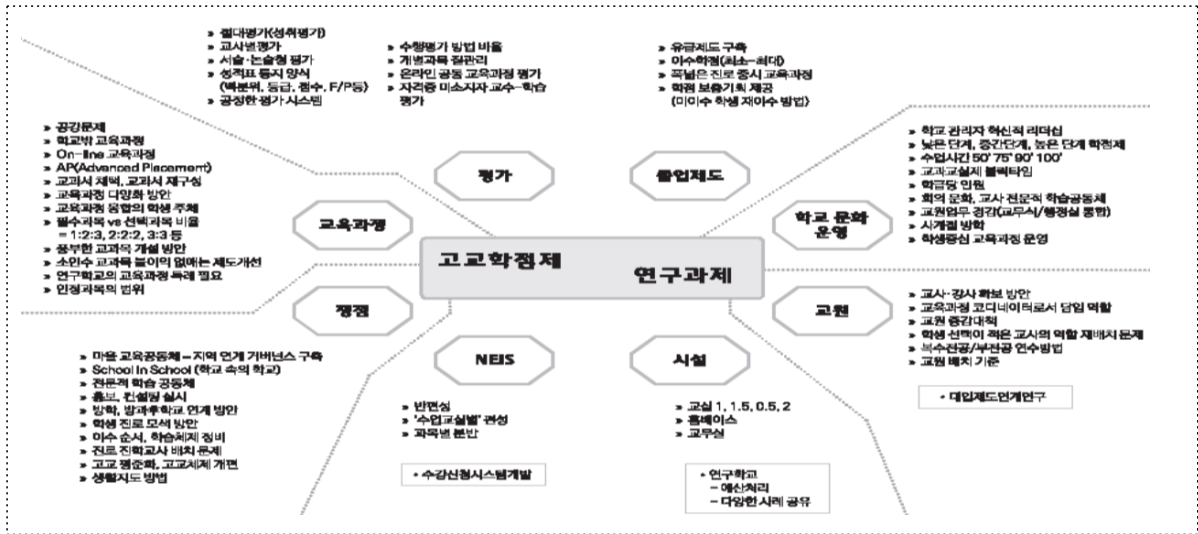
**다. 제안 : 복잡한 고교학점제, 초기 조건이 관건!**

복잡성을 띤 문제일수록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사소하고 우연한 변화에서 시스템이 크게 변화한다. 또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변화는 끊임없이 새롭게 창발된다. 끊임없이 새롭게 창발되는 고교학점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들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5]과 같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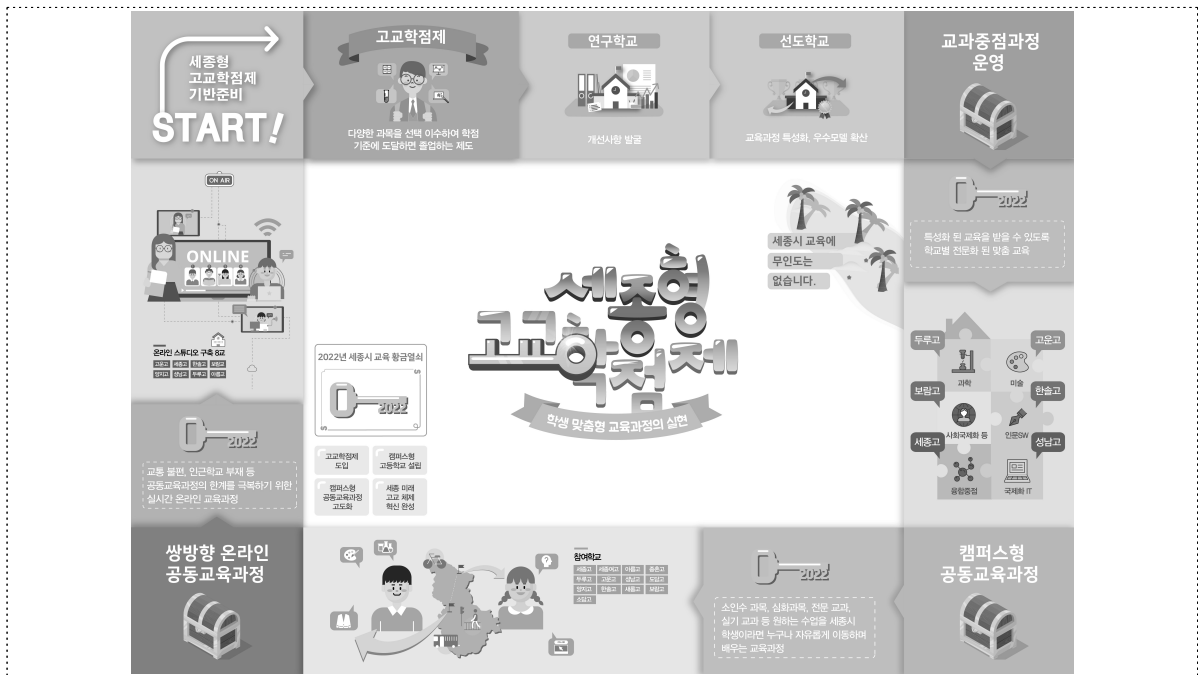
[그림 15]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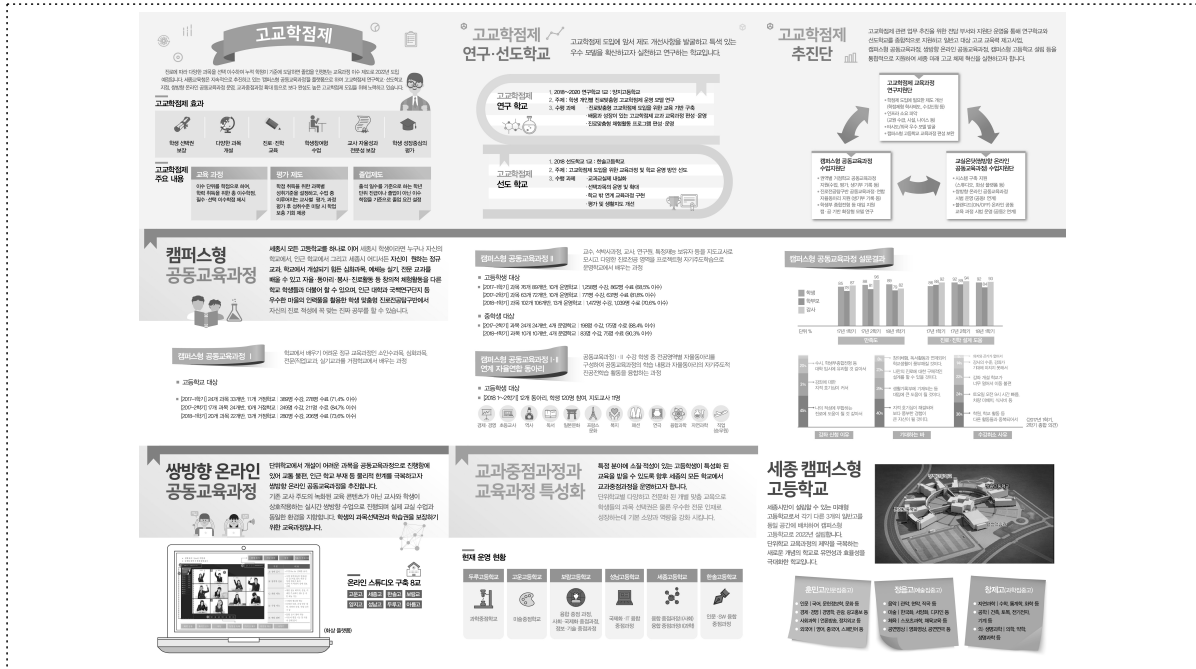
교육부는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점제형 학사제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기에 기대가 크다. 다만 2020년보다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의 지원단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지역별 실천이 요구된다. 복잡성을 띤 문제일수록 초기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훌륭한 계획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정책에서는 이를 갑자기 실행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갑작스런 변화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실천 방안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림 16] 고교학점제 추진과제의 종합적 범위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각 시도의 여건에 맞는 「○○형 고교학점제」를 마련하여 단위학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림 17] 세종형 고교학점제

2019년 교육부 추진 계획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 정도의 단위학교의 역할을 제시한 점은 아쉽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과 협업 구조를 마련하여 일반학교로의 확산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은 일반학교로의 확산을 위한 공감대 및 홍보, 그리고 실질적인 학생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노력 역시 매우 필요하다. 관리자, 교사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여 학교가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만큼 담임교사의 진로 컨설팅 역량이 요청되고 진로진학 담당자가 교육과정 어드바이저(Curriculum Advis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1명의 진로진학 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더 확대하거나 별도의 교육과정 어드바이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학생 교육과정과 수업 시간표를 책임지는 교육과정 어드바이저가 교당 3~4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 3.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

팩트를 체크한다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사실 자체만 다루기 쉽고,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팩트 자체의 진실성에 가두어 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팩트에 대한 객관적 차원의 증명을 넘어, 팩트를 누가 선정했고, 왜 다루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팩트에 대한 논의는 사실을 넘어 관점을 체크하는 것

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팩트에 대한 점검은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여지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이나 관점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이미 정책으로 제시되었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관점에서 관점 체크가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이번 포럼을 시도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가.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1 :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혁신교육 확산**

관점 체크, 바라보는 방식을 의심해 본다.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관점은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써, 단위(Unit)를 학점(Credit)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정책에 해당된다.

우리 혁신교육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육과정의 변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의 진정한 성과는 수업의 변화에 있다. 중등교육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흔히 말하는 머리인 교육의 목표에 의해 몸통과 꼬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꼬리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꼬리의 꼬리인 입시에 의해 머리가 움직이는, 즉 교육과정이 파행을 이루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우리 혁신교육은 교육과정을 중심에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반성(Reflect)하게 된다. 교사 중심으로 학교에서 미리 짜둔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듣는 단위제 기반의 교육과정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확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권 또는 구성권의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혁신교육의 비전이다. 학생에게 교육과정 구성권이 있다는 것은 학생 자치권이 학생회, 자치회의 외적 요인을 넘어 수업, 교육과정의 내적 요인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2 :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역량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채우게 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틀을 변화시킨다. 학교의 벽을 허물고 학생의 배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타학교 학생에게도 배움

의 공간을 내어 줄 수 있는 것, 내 학교의 내 학생만이 아닌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의 관점 변화가 동반된다. 나는 이를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간혹 교실 문 앞에 붙어 있는 ‘타반 학생 출입금지’라는 글귀 안에는 우리 교육의 폐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폐쇄성을 넘는 기제로 작동한다. ‘타반 학생 환영’, ‘타교 학생 환영’이 붙어 있는 교문과 교실 앞에서 진정한 배움은 일어난다. 세종교육청의 “교복은 달라도 세종의 학교는 하나입니다.”라는 문구처럼, 배움은 단위학교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진정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고교교육을 바라본다.



[그림 18]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

좀 더 솔직히 진단해 보자.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단위학교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 평준화 지역도 이러한데 하물며 비평준화 지역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경쟁이 극심하다. 우수학생만 유치해서 SKY대학을 두자리 숫자까지 보내는 것, 그것이 일반고가 살아남는 최선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학교 교육의 효과’보다는 ‘선발 효과’를 믿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중하위권 학생들의 삶은 상위권 학생들의 삶에 종속된다. 철저한 입시 경쟁 중심의 논리에 폭 빠져 하위권 학생의 삶 존중받지 못한다. 학교가 이러하면 교실도 마찬가지이다. 교실에서의 삶도 성적 중심으로 흐른다. 상위권 학생에게 상장을 몰아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교세특(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해 준다. 우수학생이 많은

교실을 위해 하위권 학생은 차라리 떠들지 말고 잠자는 것을 허용한다. 듣기 거북한가. 교사들은 어떠한가. 공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전학생이 왔다고 하면 단번에 우리 반만 아니었으면 하고 바랜다. 심정적으로 다 이해된다. 내 반만 아니면 되고, 내 학교만 아니면 된다는 이 논리는 바로 우리 교육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겨자씨 같은 것이다. 나는 감시 이 무서운 논리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학교 간 협력과 소통을 말하고 싶다.

**다. 제안 : 걸림돌 뽑아내기**

학교교육이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과 상위권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출석만으로 졸업을 담보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 먼저,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과 같이 일반고의 위기가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하여 심화되어 학교교육이 왜곡되며 사교육비가 확대되는 추세는 심각한 만큼 고교체제 개편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 **[1단계 : 2017~19년] 고입제도 개선**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 동시 실시 및 공정한 입학제도 운영**(’18.하)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 실시(’18.12)→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 **[2단계 : 2018~20년] 단계적 전환**
  -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으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유도**(’18~’20)
    - (성과평가) 과거 파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 실시**
    - (전환 유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반고 전환 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공유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 전환 유도**(’18~’20)
- **[3단계 : 2020년 이후~] 고교체제 개편**
  -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개편 방안 마련**(’20.하~)
    - ※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 마련

출처 : 『’22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18.8.17.)

[그림 19]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단위학교 중심의 관행적 인습이라는 걸림돌을 뽑아내야 한

다. 사회학자들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망해 보니 협동, 경쟁, 갈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 협동적 상호작용이 가장 많았고, 앞으로 네트워크된 사회에서는 더욱 협동적 상호작용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적 상호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판이다. 미래 사회의 모습이 이처럼 바뀌는데, 학교는 입시를 중심으로 경쟁 구조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교육의 공공성, 책임성, 미래성, 민주성, 혁신성, 현장성은 공동체성의 기반 위에 성장한다. 특히 입시로 분절되고 황폐화된 고교 교육에서 단위학교 간의 소통과 협력,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노력은 기존 고교 교육의 관행적 인습을 떨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단위학교 중심의 관행적 인습을 넘어 학교 간 넘나들기, 지역 사회의 대학과 넘나들기, 마을과 넘나들기, 온라인으로 세상과 넘나들기, 고교학점제는 「넘나들며 배우기」이다.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며 교실과 학년을 넘나들며 배우기를 실천했던 혁신교육은 마을과 소통하며 마을교육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듯이, 고교학점제는 더 큰 넘나들며 배우기로 나아가고자 한다.

## 나가며

철학자 윤구병은 온갖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없을 것이 있고 있을 것이 없는 나쁜 세상을,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언급처럼 고교 교육이 나쁜 면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좋은 고교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천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있는 것보다는 있어야 할 것이 더 중요하고 없는 것보다는 없어야 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주춧돌 세우기 : 자기 교육과정 구성권을 가진 학생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첫째, ‘진로에 따라서’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중학생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마친 후,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에 가장 부합되는 고등학교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때 고등학교는 저마다의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 특색화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후에도 진로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진로가 자신만의 진학 로드맵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의 전공과 깊이 있게 연결된 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종사하고 싶은 직업군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변화하는 세계의 시대를 읽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민하는 큰 틀에서 대학의 전공에 대한 이해, 해당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과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스스로’이다.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단위제 교육과정 이수제도와 달리,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학교와 교사 중심의 과정제시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형성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자기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과목 선택권을 넘어 교육과정 구성권, 설계권이 학생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교육과정을,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일체화시키기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주인이 ‘학생’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춧돌인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작게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크게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디딤돌 놓기 :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교과 운영 역량**

김정빈(2017)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지역 고교 교원들의 약 72% 정도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찬성하는데 전면도입(5.8%)보다는 단계적 도입(66.4%)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한국교총(2017) 역시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의 의견조사에서 긍정(42.6%)과 부정(47.4%)이 비슷했다. 즉, 우리나라 현실적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적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의 핵심과 관련하여 강현석(2017)은 학습의 양, 학습의 속도, 배움과 삶의 연계를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교육부 차원의 교육과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결국 단위학교 교육과정 실행주체로서 교사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고교학점제 역시 고교 교사들의 역량이 핵심이고, 그 중에서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기본적으로 학생중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이기주의나 교사 편의주의로 구현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을 교과(군)의 경계 없이 학생 선택의 범위를 최대화한 학생중심의 개별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은 진로 탐색의 시기이므로 공통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학기 초부터 기초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며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 어떤 과목을 계열성 있게 이수해야 하는지 각 과목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어드바이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런 노력들은 학교민주주의가 잘 작동됨으로써 활발한 의사소통의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중심의 활동이 존중되고 무엇보다도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과별, 업무별, 학년별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민주화되고 개방적인 학교공동체 속에서 교사들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수업 역시 지식전달위주에서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에 기반을 두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이해와 삶의 적용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수와 성공 축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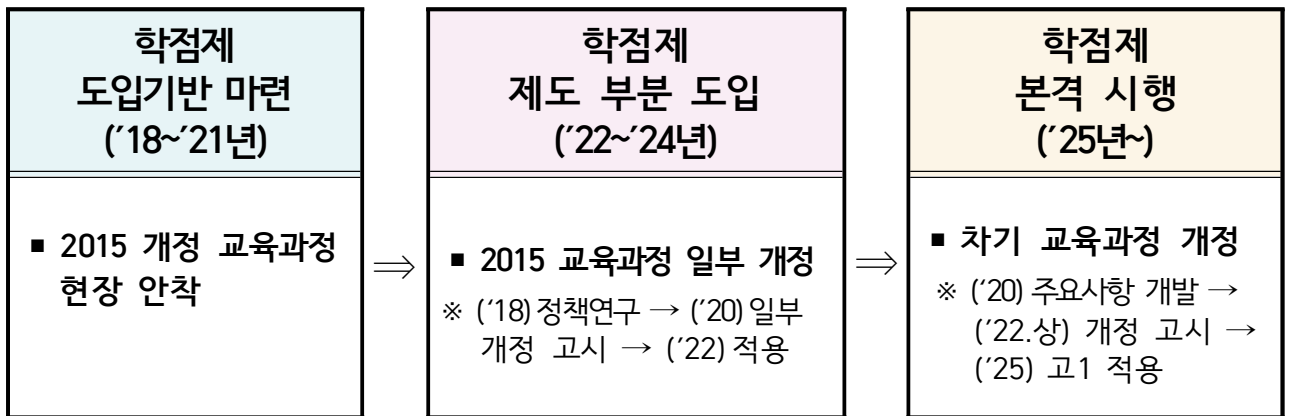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디딤돌인 교사의 교과 운영 역량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작게는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 과목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교양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자격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을 제시하여 작은 혼란도 막아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교원 연수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와 맞물려 해당 과목의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크게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 복수전공을 늘려나가는 등 양성 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원 연수의 경우 교양 과목을 넘어선 각 교과와 심화과목 수업 역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원 과정 연계, 학습 연구년 확대, 별도의 부전공 연수 개설 등 교과 운영 역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의 동력은 교사이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복수 과목의 교수-학습으로 교원의 업무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의 안내 교사 등을 동시에 한명의 담임교사가 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교원업무 경감 검토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역량 강화를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교사의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요청한다.

「고교교육 혁신방향」(8.17.) 관련

고교학점제 안내 자료

- ◆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2년 제도 부분 도입과 충분한 준비 거쳐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성취평가제 정착 지원



□ [1단계 : ~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18~, 105교)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적용
  -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 (연구학교) 학점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우수 운영모델을 개발
    - ※ (선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혁신 경험을 지닌 학교들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모델 발굴·확산
-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대입 정보제공 안)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 원점수·평균·성취도·수강자 수 제공, 성취수준별 학생비율 추가 제공

[학교생활기록부(현행)]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과목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수준 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 □ [2단계 : 2022~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 일부 수정 적용
  -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 마련
    - \* (예시) (1단위) 50분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 (1학점) 1단위 수업량과 이수기간·질 등을 고려하여 정의
    - \*\* 선택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이수 학점량과 인정 기준 등
    - \*\*\* 연구소, 대학,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이수한 내용 인정 범위 등
-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

□ **[3단계 : 2025년~] 새 교육과정 적용 및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 전 과목 확대 등 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

-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5년 고1부터 적용
- 차기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

# 붙임1

##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시기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18~'21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22~'24년)	학점제 본격 시행('25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 교육과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 정책연구 → ('20) 일부 개정 고시 → ('22)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 교육과정 적용 및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 전 과목 확대 등 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주요사항 개발 → ('22) 상 개정 고시 → ('25) 고 적용</li> </ul> </li> </ul>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18~, 105교)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과목선택권 최대한 보장</li> </ul> </li> <li>* (연구학교) 학점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우수 운영모델을 개발</li> <li>* (선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혁신 경험을 지닌 학교들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 발굴·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 일부 수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제로의 전환*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 기준** 등 마련</li> </ul> </li> <li>* (예) (1단위) 50분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 (1학점) 1단위 수업량과 이수기간질 등을 고려하여 정의</li> <li>** 연구소, 대학,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이수한 내용 인정 범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5년 고1부터 적용</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교원입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li> </ul> </li> <li>* (대입 정보제공 안)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 원점수·평균·성취도·수강자 수 제공,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추가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기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li> </ul>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학점제 제도개선		정책연구 * 교육과정 평가, 교원·시설 등	종합 추진계획 마련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학점제 본격 시행
교육과정	2015 부분개정	정책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일부 수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면개정		개정 발의 및 기초연구	총론 확정 교과교육 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내신 성취평가제		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고1부터)				성취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전과목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확대(고1부터)

1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로서
- 현행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 제도 정비를 거쳐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2 고교학점제는 언제 도입되나요?

- 고교학점제는 2022년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 작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점제형 학사제도를 완전히 적용하기 보다는 '22년을 목표로 학점제의 골격이 되는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도입하고,
    - \* '학점' 개념 도입, 학교밖 이수기준 마련, 과목 선택권 확대 등
  - 학점제에 따른 과목 재구조화, 전 과목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확대 등 보다 완성된 형태의 고교학점제는 '25학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는 연기·유예되지 않았습니다.
  - 「'22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18.8.17.)에 제시된 학점제 도입 일정은 작년 11월 발표된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 \* 교육과정 개정 범위와 시기,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대상 및 적용 시점, 학점제의 단계별 도입 일정 등
  - 고교학점제 도입 자체를 연기하거나 유예한 것이 아닙니다.

**<고교교육 혁신방안 주요 내용('18.8.17.)>**

단계	적용 학년도	교육과정	평가
1	'18.~'21.	'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 '18 고1부터 적용)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반영 ( '19년 고1부터 적용, '22 대입)
2	'22.~'24.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적용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3	'25.~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 적용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전 과목 대상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25년 고1부터 적용)

**③ 고교학점제 도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기존 계획대로 운영됩니다.
  - 연구·선도학교는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인프라 소요 파악 등 본래의 운영 취지에 따라 유지 예정이며,
  - '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과목선택권 확대에 기반을 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등 연구학교 운영 과제를 지속 수행 예정입니다.
  - ※ 운영 기간 완료 시 고교 교육력 사업, 선도학교 전환 등 제도 도입 시까지 학점제에 따른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 사항 검토
- '19년도에는 연구·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22학년도 대입 개편 등 교육 제도의 변화 아래 1차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성과와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학교를 추가로 지정·운영함으로써
  -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확산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발판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 ※ 연구학교 운영 기간: (1차 지정학교) '18.~'20., (2차 지정학교) '19.~'21.

○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3개 연구기관에서 교육과정, 평가, 교원, 시설, 학교문화 등 분야별 정책연구 추진 중

<'18학년도 현재 학년 기준 제도 도입 시기>

구분 \ 학년도	'18.현재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15 개정 교육과정 최초 적용	고1	→	'21 대입							
2022 대입개편안/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중3	고1	→	'22 대입						
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초6	→	→	→	고1	→	'25 대입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전 과목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확대	초3	→	→	→	→	→	→	고1	→	'28 대입



### <참고문헌>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 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
- 교육부(2018). 고교교육 혁신방향(고교학점제) 안내
- 강현석(2017).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한 교육과정적 과제 검토. 토론회 겸 제106차 KEDI 교육정책포럼 지정토론 원고.
- 김정빈(2017). 고교학점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고교학점제 추진의 의미와 전망」 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10-51
- 김진철(2018). 세종형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
- 한국교총 보도자료 (2017). 교육부의 고교 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2017.11.27.). KFTA 보도자료

##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  
진동섭

### 1. 고교학점제 도입과 정책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 질 관리와 학생 이수 질 관리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과정 질 관리 차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배움을 학교가 충족시켜주며,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또는 고교-직업교육 연계 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학생 이수 질 관리 차원에서는 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도 이수자로 인정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학생이 원하는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지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교육부 차원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을 선언하는 당시에는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고교학점제에 부여하고 있다. 학점제를 통해 교육과정 질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을 바탕으로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선하며, 한편으로는 학점제를 완성하기 위해 대입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 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국정과제 50.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에서 ‘복잡한 대입 전형 단순화 추진·적용(18년~),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18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도자료(2017.11.27.)를 내고 학점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교육부는 정의하였다. 보도자료에서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한다고 전제하고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까지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학점제의 핵심 조건인 것으로 읽힌다.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로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약이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서는 이어서 학점제는 과목 선택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

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고교학점제 도입 필요성에 논의한 결과 ‘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고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과목 선택권 보장뿐 아니라 줄 세우기식 평가도 개선하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고교체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서,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즉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수학습·평가 개선을 통하여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 차이를 없애 고교 체제 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고교학점제 도입의 의미로 읽힌다. 보도자료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고교체제 개편	고교교육 혁신(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입 동시실시('18.하)</li> <li>▶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 추진('18~'20)</li> <li>▶ 고교 체제 개편('18.하~)</li> <li>- 국가교육회의 논의 후 추진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li> <li>▶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하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li> <li>▶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수업과 평가 혁신</li> <li>☞ 학점제를 도입('22 예정)하여 선택형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혁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마련('18.8.)</li> <li>▶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li> </ul>

[그림] 고교학점제 도입의 비전

보도자료의 추진 논리에 따르면 우선 학점제 도입으로 고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교 교육력이 혁신되는 단계에서 고교체제 개편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표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표> 학점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비교

구분	이전	변화
학생상	- 타율적 관리의 대상 -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동적 존재	- 자율적 존재로서 본인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 - 자율(과목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이수)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 성장
교사상	- 교과 지식 전달자, 학생 관리자로서의 역할 중시 - 대학입시 및 진학지도 전문가	-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 -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대
교육의 다양성 확보	- 학교 유형 다양화(외고·자사고)를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 - 학교 간 서열화	-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 타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제시 - 평준화 체제 하의 수평적 다양화
	(예시) 고교 체제 개편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비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lt;외고&gt; 심화 영어 회화 작문                      &lt;국제고&gt;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lt;자사고&gt; 사회문제 탐구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lt;일반고&gt;                      심화 영어 회화 작문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사회문제 탐구                 </div>
대입	-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 - 국·영·수 내신 및 수능 중심 입시	-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적 평가 강화 - 선택 교과 자발적 학습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러나 대입을 먼저 개선하고 이를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 방향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정해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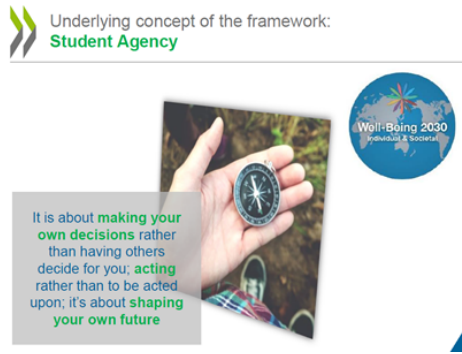
나. 고교학점제에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논의와 연구·선도학교에서의 추진 상황

1) 고교학점제에 대한 필요성 논의

고교학점제는 교육부가 제시했던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과 수업 및 평가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중요한 미래 역량으로 ‘선택하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의미가 있음을 연수 자료 등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서의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한국교원대학교종합연수원(2017))에서 당시 교육부 이종현 실장은 ‘고교 학점제 운영 관점’으로 ‘학생의 자기 진로의 교과 선택을 넘어 자기 삶의 기획력, 입시 공부야 아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배움, 학생이 배움과 삶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 운영 혁신, 협력, 배려, 공감의 학교 문화 혁신으로 삶의 질 추구’ 등을 들고 있는바, ‘자기 삶의 기획력’을 가장 먼저 꼽고 있는 점은 교육부의 학점제 추진 방향에서 ‘선택하는 역량’을 우선시 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참고> OECD의 학생 주도성 강조

OECD에서도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주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을 위해 남이 내린 결정보다 학생 스스로 내린 결정, 남에 의한 행동보다 학생 스스로 하는 행동이 학생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림] OECD 홈페이지

이광우는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이광우, 2018.01.10.)으로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진로개척역량 함양 필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의 성장 견인, 과목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고 학교 간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학점제는 ‘진로 개척 역량을 갖추어주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고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며, 다양한 선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간 이수를 할 수 있도록’하자는 것으로 읽힌다. 일단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의 큰 그림보다는 학점제 자체의 추진 의미에 집중한 것이다. 즉,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요소인 선택권 확대 및 수업 및 평가 개선 차원에 집중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선도학교의 추진 상황

2018학년도 전반기 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대한 컨설팅 활동 결과를 두고 2018년 8월 2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턴트 2차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 자료집에 의하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학생 평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문화,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였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컨설팅했다고 한다.

- 소인수 과목 개설을 위해 인근학교와 공동·온라인 교육과정, 순회교사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공강 시간 최소화, 학생 선택 우선 시 공강 발생에 따른 학교 일과 운영, 유휴 교실 활용, 학생 지도를 위한 학교 자체 방안 마련
- 오전 공통 과목, 오후 선택과목 중심 편성하되 학교 여건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편성
-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따라 정기 교사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학생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소인수 과목 성적 처리(방점)에 대한 대학입학사정관 및 학부모 대상 홍보
- 과정 평가에 따른 교과별 세부특기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정
- 소인수 과목 평가는 정기고사보다는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시 평가로 전환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평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하여 컨설팅 주관 기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목적과 학교의 현실적인 문제(예를 들면 9등급 내신 평가, 교원 수급, 교실 여건 등)의 차이에 따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3년간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요 쟁점 사항으로 최소성취기준 미달에 따른 과목 재이수 문제, 선택 과목 수 증대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 다과목 담당교사의 수업, 평가, 기록 부담 문제를 꼽았다.

이상의 연구학교 컨설팅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학점제 연구학교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2019학년도 학생들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과정에 있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에서는 소인수 과목 이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직은 최초로 고교 교육 정상화 내지는 교육 혁신으로서의 학점제 도입 의도보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학점제 연구학교는 2019학년도 2학년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2018학년도 입학생의 2019, 2020 교육과정 편성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학교를 찾기 어렵다.

## 2.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하여 나아갈 길

학점제가 고교 교육 정상화 내지는 고교 교육 혁신을 이루는 수단으로 고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초 현 정부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의 의도대로라면 학점제는 모든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의 모습을 갖는 것으로 어떤 학교를 보내더라도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변화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가. 고교학점제와 교육 혁신에 대한 비전 제시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선택 교육과정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나아가 개인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과제 실현의 문제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것을 공감하는 고교 교육 혁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2022 대입제도 개편 발표 및 고교학점제 도입 연기 등으로 교육혁신에 대한 동력조차 꺼져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교육부의 학점제 추진에 대한 의욕도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혁신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혁신연대 등 고교 교육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등이 나서 학점제 추진에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도 비전을 제시하며 교원들과 함께 학점제 추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학점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많은 문제 중의 몇몇은 학교 내부에 있기도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의지 부족에 있기도 하다. 예컨대 2018 입학생의 2, 3학년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가 문·이과를 구분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도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교육청이 눈감고 있다면 학교교육과정은 개선되기 어렵다.

#### 나. 교육청의 역할과 위상 강화

시·도별로 학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매우 다른 점을 감안해서 시·도교육청은 능동적으로 학점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고, 교육부는 전체적인 기준 제시, 제도 개선 등의 여건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서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선택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 역시 시·도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학교 간 거리가 멀어 불가능한 곳도 있다. 그뿐 아니라 지역 대학이 수능을 중시하는 대입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있다. 이런 다양한 여건을 수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별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다. 내신 평가 및 수능 제도 등 대입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2022대입제도 개편은 수능 정시를 30% 이상으로 권장하며, 이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는 수능 정시는 이월 인원까지 합하면 40% 이상이 될 것이며 대학에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으로 대입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수능 정시 30%보다 70%의 수시 전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학교가 학생이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데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고교교육 혁신 방향도 발표하면서 입시 중심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미 2012년이며 이를 2014 대입에 반영하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 유형별 유불리로 인한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성취평가제의 대입 적용은 계속 미루어져 왔다.

즉 대입제도 개편 없이 성취평가제를 대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교육부는 2025에 대학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결정해야 유불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대상자가 초등학생 때 대입제도를 개편하고 발표해야 학부모의 반발을 사지 않게 된다. 대입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 있어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고교학점제 및 대입 제도 개선 등의 현안을 다룰 협의체 운영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대입제도 개편 등을 다룰 민·관·학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가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전 시대에 교육 관련 사항을 개편하는 일은 정치권과 교육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교육 정책이 바뀌는 제도로 대비하기가 어렵다.

교육혁신연대는 지난 6월 대입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사이에 2025 대입개편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었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끝나는 8월 이후 즉시 교육제도 개혁과 2025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교육전문가와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2022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전면도입과 미래형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방안과 2025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기구에는 현장 교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학부모도 참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문직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중등교육 관련 학계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추천한 인사도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 3. 맺음말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부분적으로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들의 총체적 집합이다. 이미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학생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기에 들어 교과 내 선택을 넘어 교과 간 선택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또한 교수·학습 개선 노력 역시 1986년의 국가교육개혁심의회 보고서부터 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수업 개선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이미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생적 노력, 교과교실제 운영 및 STEAM 교육 등의 정책으로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매우 적다. 분반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직의 불안정성 확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도 있고 학점제로 인한 시간표 운영, 분반, 설문 등 행정 업무가 늘어날 때 이를 지원해 줄 인



원의 보강 등 다양한 과제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의 참고자료에서 이러한 논의의 대강을 제시하는바, 다음 논의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1>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 해설

○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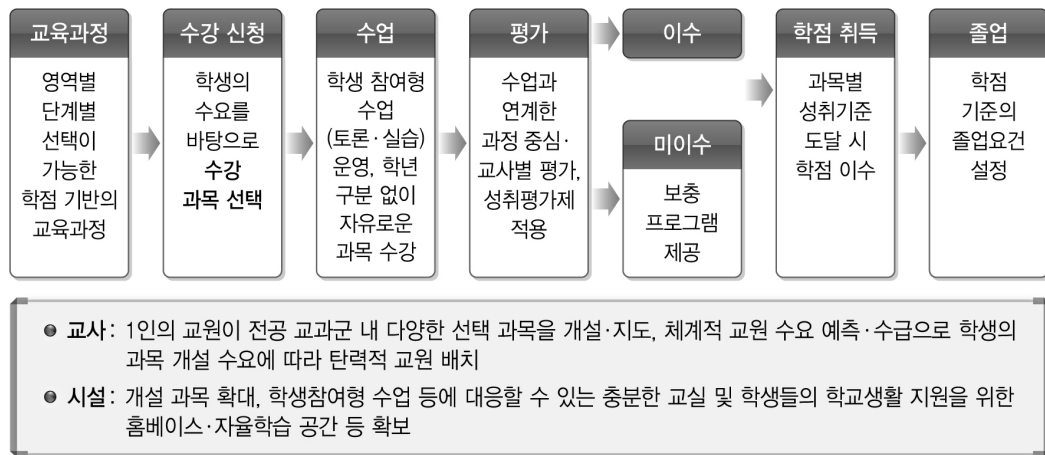
-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수학습·평가개선 등 고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함.

○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건이 필요함.

- 교육과정 측면에서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하여, 학력(자격)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필수 이수학점 등이 제시되어야 함.

- 평가제도의 측면에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이수 기준 설정 및 과정 중심 평가의 안착이 필요함.

- 졸업제도의 측면에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졸업이 아닌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졸업요건 설정이 필요



[그림]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최종 완성 모형)

※ 고교학점제의 완성 모형으로서 성취평가제 적용 등은 연구·검토를 거쳐 시기·방안 등을 결정하고, 미이수(F)·재이수 등은 제도 안착 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예정

○ 고교학점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현행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중·장기적 준비를 거쳐 우선 적용 가능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학점제연구학교운영 매뉴얼)

<참고자료 2> 학점제 정책 차원의 추진 과제

출처: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도입·추진 방향 및 과제. 2018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2018).

○

<국가 수준>

○ 국가 수준 교육과정

- 졸업이수단위, 수업시수의 조정

<참고> 졸업이수단위, 수업시수의 조정에 관한 연구 참고 자료

※ 2018\_0727. I.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

김진숙, 이광우, 조보경, 이민형, 이수정, 임유나(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필수이수교과, 각 교과별 최소이수 학점
- 과목의 위계화
-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 학점제 시행 관련 법규의 제정
- 학(기)제 운영의 다양화와 유연화

<시·도교육청 수준>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구축
-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수강 시스템 구축
- 신설과목 개설 기준의 완화:

※ 신설 과목 및 교육과정의 분권화 정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학교 간,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밖 학습경험 인정

<참고> 학교밖 학습 경험 인정에 대한 연구 참고자료

※ 2018\_0727. II.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이근호, 이경연, 김현미, 김현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지역사회 연계 선택과목 개설·운영

<학교 수준>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 맞춤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확대
- 교사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 보장
- 진로중점과정 개설

-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단위 학교 역량 개발
- 교육과정 결정에의 학생, 학부모 참여 확대 제도 보완

○ 학습집단의 편성

- 무학년제
- 자유 수강 신청제
- 개인별 수업시간표

# 교육평가 관련 검토 사항

○ 학생 평가

- 학생평가방식 및 기록
  - 교사별 평가, 성취평가(절대평가), 과정중심평가
  - 소인수 선택과목 학생평가 기준의 상향 조정
  - 학생성장 맞춤형의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 및 기록 방식 개선
  - NEIS 시스템 개편

- 이수 및 졸업 요건

- 과목별 이수 조건/기준의 설정
- 속진, 조기졸업, 유급, 재이수 도입
- 진급 요건 설정
- 졸업 요건/기준 설정
- 졸업자격시험의 도입

- 평가 질관리

- 평가 공동체 구축
- 평가의 질 관리 체계
- 평가 전문성 강화 지원 시스템 구축

<참고>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관련 연구 참고자료

제3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2018.09.06.)에서 평가 관련 사항을 다룸

발제 1: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방식 : 국내·외 사례 (김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제 2: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교육평가 쟁점 및 평가 방안 (이명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및 대학입시

- 수능 성격과 평가 방식
  - 수능의 성격 재조정
  - 수능 평가 방식의 개선
  -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절대평가 시행
  - 수능의 영향력 축소
  - 수능 자격 고사화
  - 서술형평가

- 대학입시
  - 내신 비중 확대
  - 학생부의 실질적인 영향력 강화
  - 학생부 전형의 질적 개선
  - 대입제도의 개선
  - 대학의 학생 선발 역량 강화

- 수능과 대입시의 연계
  - 고교 교육과 대입전형의 연계성 구축
  -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 학점제와 수능과의 연계성 최소화

### <참고자료3> 2030 포럼이 논의할 고교 학점제의 학교 적용 과제 (진동섭 작성)

#### 가. 학점제의 의의에 대한 공유

##### ○ 이수 과목의 선택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면, 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 학점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선택에 대한 개념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도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우리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해 왔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기에는 진로집중과정을 강조했지만, 나중에는 과정형성형 진로집중과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학생 개인 선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 총론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학교 현장은 문·이과로 양분한 교육과정에서 교과군 내 선택 수준에 그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을 더 강조하여 필수이수단위 수준의 이수 이외에는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학교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제 언급이 나오면서부터는 학교 간 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한 외부 이수가 더 강조되는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학점제 교육과정에서의 과목선택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의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수용: 교사는 여러 과목을 담당할 수도 있어 학습 준비 및 지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학교 간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 수요를 충족: 외부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지도 상의 문제점, 이동 비용, 급식 제공 등의 문제점은 학교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 지역사회 문화센터, 직업교육 기관,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등을 이용한 이수 충족: 고교 수준 여부를 알 수 없는 기관에서의 이수를 인정하기 위한 사전 인증 등이 필요. 이 부분도 고등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 기타 선택 확대 관련 사항
  - 교내 선택 확대가 최우선. 이에 따른 지원 확대
  -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가능성
  -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가능성
  - 온라인 교육과정 관련 문제들 해소 방안
  - 벽지 소재 소규모 학교 문제 해소
  -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 평가 개선

학점제는 일정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학점의 합이 일전 수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 출석 2/3 이상만 되면 이수 인정이 되는 것과 큰 차이점이다. 가장 큰 쟁점은 F 학점을 줄 것인가, 또는 절대평가로 몇 단계를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7차 교육과정 초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1학년

1학기 수학 10-가, 영어 10-A의 경우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학 중 보충학습을 통하여 재평가를 한 이후에 다음 단계를 이수하도록 했으나 제도 운영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사례가 있다.

- 학점제 도입과 동시 A부터 F까지 몇 단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 여부
- 과정 평가, 논·서술형 평가 방식 적용과 공정성 타당성 논란에 대비
- 도입 시 3, 5, 7, 9 단계 등 단계 설정 방식
- F 학점 맞는 학생 및 6학기 졸업이 안 된 학생에 대한 지도 방식
- 절대평가 성적을 대입에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의사 결정권 수준(범위)의 설정

##### ○ 학교 지정 과목의 운영과 학점제 부합 여부

학점제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 선택형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학교가 학교 지정 과목을 통하여 학교 특성을 살릴 것인가와 이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를 학점제와 부합한다고 인정할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수학 과목에서 공통 수학과 수 I, 수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를 필수로 하고 경제수학과 수학과제탐구, 심화수학 I 같은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점제와 부합한다고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이다.

##### ○ 교과 중점 학급의 운영

교과 중점 학교의 경우는 해당 교과를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어 학생이 자유롭게 이수 과목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과 중점학교는 일반고에서 운영하므로 일반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충돌한다. 과학중점학반 학생이 그 과정에서 과학 I 과 과학 II를 필수로 이수하는 것과 학생이 자기 의지에 의하여 과학 I 과 과학 II의 8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결과가 같으므로 굳이 과학중점학급과 같은 교과 중점 학급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교과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집중의 이점이 있겠지만, '선택'이라는 가치가 우선시 된다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점 이수 교과(과목)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 신설 과목 운영 및 보통 교과 이외의 과목 운영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신설 과목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점은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신설 과목이 보통 교과 수준 이외의 것일 때,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인지 또는 승인 내지는 심의를 거칠 것인지 등은 국가 차원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I 수준의 과목을 대거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고급물리를 이수한 학생이 그 과목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보면 대부분은 잘 이수한 경우가 드물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고에

서 특목고 수준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개설하도록 하지만 이에 대한 과목 운영 질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교과뿐 아니라 전문교과 II 영역의 과목 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 다. 단위학교의 과목별 이수 단위 결정권

학점제로 전환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는 이수단위 증감 부분이다. 현재는 선택과목은 5단위를 기준으로 2내지 3단위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과목이 학교별로 이수단위가 다르기도 하지만, 동일 학교 내에서 학년이 다를 경우 이수단위를 달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학기집중이수로 편성할 수도 있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하고 있다. 심지어는 4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는 과목도 있다.

학점제 도입에 따라 선택뿐 아니라 재이수까지 염두에 둔다면, 동일 과목을 2개 학기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서 이수기준 미달 발생하는 경우 재이수 제공의 어려움 등 발생할 수도 있다.

#### 라. 지역사회·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등 학교 밖 이수 허용 범위

학생이 네일아트를 배우고 싶을 때, 지역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수상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학생 주 감소에 따라 대학도 고교생을 지도할 여력이 생긴다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부로 나가 이수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등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우선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수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등학교 수준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학습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이수의 경우 평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네일아트 같은 과목을 이수했다면 어떤 영역에서 이수한 것인지, 몇 단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등도 함께 정해야 한다.

외부 이수를 할 경우 외부 교육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등에 관한 부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확정된다면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외부 이수로 인해 교내 교사의 수업 시수가 적어지거나 없어질 경우 고용 안정에 관한 문제 역시 심각하다. 특히 사립고등학교가 많은 현실에서 학생 수가 줄고 교육과정에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계약직 교원이 많아진다는 것이 불만 사항으로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 문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마. 교권 존중 및 교사의 평가권 존중

교사의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적절 사례와 미투 관련 보도로 교사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어 있다. 이전에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



상황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일부 부정적인 사례를 보도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자제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교사 집단 전체를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권 및 평가권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절대평가를 한 성적이 공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 이수 질 관리에 따른 교사의 평가권 확보 및 평가 전문성 제고

학점제는 필연적으로 절대평가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수 질 관리를 상대평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절대평가에서 가장 어려움 점은 경계선 평가이다. 어떤 수준에서 A와 B를 가를 것인가 또는 F를 주어야 할 성적(역량)은 무엇인가 등을 결정하는 경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결정이다. 이 부분이 학생·학부모와 평가권을 가진 교사가 부딪치는 접점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 내적인 해결 방법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모두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 관련 사항

- 절대평가에서 경계선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문성 제고
- 과목별 성취기준 충족/미달의 경계선 구분 평가 역량 제고
- 교사의 평가 전문성 연수

○ 평가에 대한 공인 방식(외부 평가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

- 복수 채점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지필평가는 복수 채점으로 서술형 평가 등에서 평가자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결과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음. 이 경우 수업 중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는 제외될 것임.
- 성적에 대한 공인제를 도입할 수 있음. 교내에서 각 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을 학교가 공시하면서 동시에 그 학생들이 국가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방법, 학생의 시험 성적을 교사와 평가 기관이 공동 채점(일부 또는 전수)하여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 각 등급별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의 퍼센테이지를 공개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음. 단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사. 학점제 운영 관련 업무 부담이 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 부담 증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 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기 당 지도해야 할 과목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교사가 있음. 예컨대 학생선택을 많이 두고 있는 H 고등학교는 한국지리 선생님의 부담은 그대로이나, 윤리 과목 선생님은 철학 등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되어 큰 부담이 생겼다고 함. 이런 경우 개인의 책무성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일임.

○ 학점제 운영에 따라 부담을 갖게 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시간표 운영, 교실 배정 등 실무 담당 선생님, 학생의 진로 선택 안내 및 학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도하는 선생님, 시험시간표 작성, 운영 등 관련 업무 담당 선생님 등 운영 관련 인력도 전문성을 요함. 이에 따라 추가 업무가 발생할 때 이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역할을 계속 부여하기 어려움

아. 대입제도 개선

-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전면적 검토
- 성취평가제 등 내신 산출 방식 검토
- 수능 전면 개편

자.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소소한 문제이지만 중요한 사항들

○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공간 확보

- 행정학급 이상의 분반에 필요한 여분 교실
- 대형, 소형 강의실
- 교과 교실 운영
- 공강 시 학생 학습/생활 공간

○ 시간표 작성, 분반, 이동 수업 운영

- 시간표 및 분반 프로그램 또는 운영자 지원
- 선택형 시간표 작성: 공강 없는 시간표 여부
- 학급 편성: 필수 과목 중심 편성/선택과목별 동일반 편성
- 이동 수업 시 이동 거리 고려
- 교육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지원

○ 교사 운영 시 고려사항

- 시험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 작성
- 시험 시간표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 예방
- 시험 중 대기실 마련, 지도교사 배치
- 다른 과목에 응시, 대기 중 잠들어 응시 못하는 학생 등 사고 예방
- 소인수 과목은 교사 기간 이외에 평가 실시

○ 시스템 개선

- 진로지도, 과목 선택 및 시험 시간표 작성 등을 나이스와 연계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 나이스와 '어디가' 연결 등 고려

- 학생 수준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대입에 연계되는지 등 진로·진학 안내 및 진학지도 내실화
- 교육과정과 진학지도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 더 생각해 볼 문제들

- 학생 관리
  - 학생 이동으로 인한 사고 예방·수습 대책
  - 학교 밖 생활지도의 책임 소재 확정
  - 중식 급식 관련 사항
  - 공강 시 지도교사 배정 여부
  - 이수기준 미달 학생의 노출 문제(민원 소지 있음)
  
-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점제로 전환 시 교육과정 운영: 학기집중이수, 이수단위 학교 간 통일 등
  - 3학년 2학기의 학습과 이수 기준
  - 선택과 수업 개선 동시 충족
  - 선택 시 과열 예방
  - 경험 있는 인력 확보
  - 지나치게 쉬운 방향으로 선택이 흐르지 않도록 질 관리 필요
  
- 교사 문화 및 학교 문화
  - 소통하는 학교 문화
  - 교사 사기 진작 지원
  - 상치교사 발생
  - 강사 확보 및 강사료 현실화
  - 학습 및 업무 부담 증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 학기 집중 이수로 인한 담당 과목의 불안정성 극복 방안
  - 교사의 출장, 시간표 변동의 어려움 해소 방안
  - 교과교실제 확대 및 문제점 최소화 방안 강구

<참고문헌>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교육부(2018).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김정빈, 김수영, 함영기(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2018). 고등학교 혁신의 관점에서 본 고교학점제의 가능성 탐색

한국교원대학교종합연수원(2017). 2017년 고교학점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관 워크숍

한국교원대학교종합연수원(2018).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2018). 2018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2018). 2018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2018). 2018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턴트 2차 워크숍

한국교원대학교종합연수원(2018).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원 연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2018).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하계 워크숍

한국교원대학교종합연수원(2018).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핵심교원 연수

##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한 고교학점제를 꿈꾸며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연구부장  
이 효 현

영.수 선행, 과학고 외고 준비, 고교생활 내내 치열한 내신관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내신에서 까닥 실수한 학생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기위해 정시는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다. 명문대를 가고도 더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해 반수를 한다. 공정성을 위해 지필고사로 줄세우기를 한다.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 비유하자면 대학입시의 승자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을 갖춘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지 않고 줄기차게 뛰어야 될 수 있다.

명문대 진학률로 고교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는 입시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부분의 활동이 입시와 연관 지어 진다. 종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학교의 모든 교육적 활동은 입시로 필터링되어 귀결된다. 고교 교육이 입시중심이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기.승.전.입시로 귀결된다. 이런 상황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이런 고교교육의 틀을 바꾸고자 제시한 공약이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적 비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 추진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중심교육과정 개편,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하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수업과 평가혁신이다.

셋째는 학생성장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마련과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일단 고교학점제를 통해 현 교육의 방향성을 잡고 교육을 교육답게 혁신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전문가 그리고 교사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2022년을 거쳐 2025년에 이르러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공교육이 더 이상 입시에 갇혀 대학을 가기 위한 소수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아 모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이 존중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고, 교사의 수업권을 포함한 교권도 신장하여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되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현장의 교사 분들이 활발한 논의와 실행을 해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냥 잘 되겠지, 아마 지금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때 쯤 교육은 많이 변해 있겠지. 어차피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사는 충분하니 저절로 잘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잘 하나 내가 지켜 볼 거야!”라며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지난 대입 공론화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부모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육현장의 변화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입공론화를 거치기 전까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부모는 수시 정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어떠한 입시제도 하에서도 공부 할 놈은 하고 대학 갈 놈은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공론화 현장에서 교육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은 건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른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고민을 통해 ‘학부모가 변하면 교육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아쉬움이었다. 학부모 인식전환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안을 내오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다는 것이다.

교육의 변화는 1)제도도 변해야 하지만 현장에 있는 학부모의 생각이 변해야 하는구나를 2)지금 입시제도 하에서도 학부모가 대학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교육적으로 교육 현장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이미 혁신은 시작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3)또한, 관심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번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같은 맥락에서 뒤 늦은 후회보다는 교육의 3주체로서의 학부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든든한 교육혁신의 동반자로서 때론 지지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야 현장이 제대로 변하기라 생각한다. 학부모를 주체화하기 위해 학부모로서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교육당국은 각 대학에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비전 그리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객관

성 등을 알려 대학입시와 이 제도의 실행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입시가 고교학점제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현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교학점제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고교학점제의 본 취지를 살려 실행되기 힘들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입시 위주의 교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는 교사의 업무만 가중 시킨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사는 제대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현 입시 체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문.이과 구분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고 또한 학생 자신도 자신의 흥미나 진로보다 대학등급산출에 유리한 교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과를 선택하고자 해도 학부모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의 다양한 수업형태와 평가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 또한 실행이 힘들어진다. 다양한 수업형태가 입시에 불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교사의 평가를 공정성을 이유로 지필평가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교교육의 혁신은 어렵다고 본다.

셋째, 교육 혁신의 비전은 바로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목소리, 학생의 목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수렴하는 데서 얻어진다고 믿는다.

학교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교육 3주체와의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서부터 공유되고 만들어진 비전이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또한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꼽히는 학부모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의 유불리를 따져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민원은 제대로 해보려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 시킬 것이다.

넷째, 협의체구성과 학점제의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학교단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을 나와 체계적으로 실행해야한다.

형식적으로 학부모들 모아 놓고 단순히 강의만하면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번의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임토의 형식을 거쳐 학부모가 자기의 생각을 내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같은 입장의 학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즉,교육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학부모가 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대안을 제시하든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설득을 통해 학부모가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불만과 오해가 쌓여 교육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실 학부모와 함께 한다는 게 힘들다.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학부모이고 거기에 교육에

대한 고민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변화는 학부모가 변해야 이루어 질 수 있고 또한 그 학부모가 꼭 제대로 서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교육은 학생만 시켜야 하는 게 아니다. 학부모도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고등학교 학부모는 사교육시장에서 입시위주의 부모교육을 거의 강박받는 수준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경쟁과 불안을 야기하기 영혼 없는 부모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줘야한다. 오늘의 행복을 대학 이후로 미루고 오직 대학만을 위해 공부만 강조하는 부모교육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지금 행복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찾아 갈수 있다는 비전을 말해주는 학부모 교육을 기획하면 좋겠다.

한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을 지향하며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함께하여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현실에 맞게 잘 만들어져 고교교육의 혁신의 아이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교학점제

세종 양지고등학교 1학년

홍순상

제가 다니고 있는 세종 양지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교학점제 학생중심 선택교육 과정을 2020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연구학교 중 하나입니다. 학생 개인별 진로맞춤형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연구라는 주제로, 진로맞춤형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고교학점제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1학년 학생들은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과목 선택을 마쳤고, 2학년부터 시작될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서 저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고교학점제 담당 선생님과도 여러 차례 토론하여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희 학생들이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꽤 인상적인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과목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기존에는 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과목 선택을 이제는 고교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상담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공통 과목을 제외한 2학년 국어/영어/수학, 탐구과목, 생활교양 과목 등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후에 대입 학생부 전형에서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평가 후 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시, 학업 보충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정 수준만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졸업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학생의 자율성이 더 확보되는 것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또한 고교학점제의 연계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심화 과목, 자신의 진로에 특화된 진로 과목을 배우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2학기에 심화 과목인 공동교육과정 I형에 대해 49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았고, 공동교육과정 II형에 대해 180개 강좌를 신청 받았고, 이 중 개강된 강좌들이 이번 2학기 캠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18년 1학기 수업 후 학생들의 만족도는 92%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자율연합동아리를 구성하여 공동교육과정의 학습 내용과 자율동아리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융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아직 고교학점제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개설되어 있더라도 기존의 과목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때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배울 과목 중,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면 국어 고전읽기 / 수학 수학과제탐구 / 영어 영어권 문화 수업 중 하나를 택하는 것과,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생활교양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선택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목이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늘어나게 되면 사교육 의존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공동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동아리의 중요성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활동과 늘어난 교과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과목 선택 시 많은 사람들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위해 직접 여러 선생님들에게 찾아가도, 선생님들마다 다른 답변이 나와 과목 선택 과정이 혼란스러워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후에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교사의 과목 선택에 관한 전문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면 이를 위한 다른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토요일이나 수요일 저녁에 수업이 진행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놓고 나서도 학원이나 다른 학교 활동에 시간들이 겹쳐 수료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수강을 취소하는 사유 중 36%가 다른 활동과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고교학점제가 실행된다 해서 학생들의 공동교육과정 참여율이 올라갈지는 의문인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성취평가제에도 여러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상대평가 체제에서 불리했던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절대평가 체제인 성취평가제에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밖에 없고, 일반고 학생들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부족한 학교에서 교육받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교에서 대학 입학 실적을 위해, 일명 성적 부풀리기라고 불리는, 시험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성적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이전의 제도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별력이 떨어진다면 학생들은 교내 수상 경력과 같은 다른 활동에 더 몰두하게 되어, 정작 교과목 공부는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는 아직 이렇게 해결해야 할 점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후에 계속적인 의견의 수렴과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와 앞으로 바뀔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과제의 해결 없이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시기에 고교를 다니는 학생은 여러 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자인 학생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 의 포럼처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더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점제 도입과 실시는 학교 변화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사  
천희완

### 1. 교실 상황과 개선 방안

#### 1-1. 현재 교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일부 학부모님은 ‘학교에 출석을 하여 졸업만 하면 된다.’고 학생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학교는 졸업장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이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것을 깨우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받고는 그냥 3번만 모두 검게 칠하고 잠을 자곤 합니다. 괜히 자기 단으로 판단을 하여 번호를 잘못 고르면 20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영어만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회도 이렇게 시험을 보곤 합니다. 선택형 문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답을 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백지로 내곤 합니다.

학교에 등교만 하고 실제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면서 졸업장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닐 경우, 학습된 무기력증이 계속 된다면 개인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또 진로나 취향이 달라서 학업을 게을리 했을 경우도 학생에게는 손실이 됩니다.

#### 1-2. 개선 방안

학교는 자기 역할을 하여야 하고, 학생은 학교의 역할을 알고 학교생활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학교는 학생의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의 희망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받아들이고 한계를 점차적으로 극복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법과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 수준을 고려하면서 노력하

여야 합니다. 그냥 출석만 하고 학교 교육에 거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학생이 30%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졸업장을 발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선 방안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성의껏 가르치고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거의 무의미하게 가르치고 거의 무의미하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선 방안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에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학교를 그냥 다니는 학생은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미이수 혹은 졸업 연기 등의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미이수되거나 졸업 연기가 가급적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한층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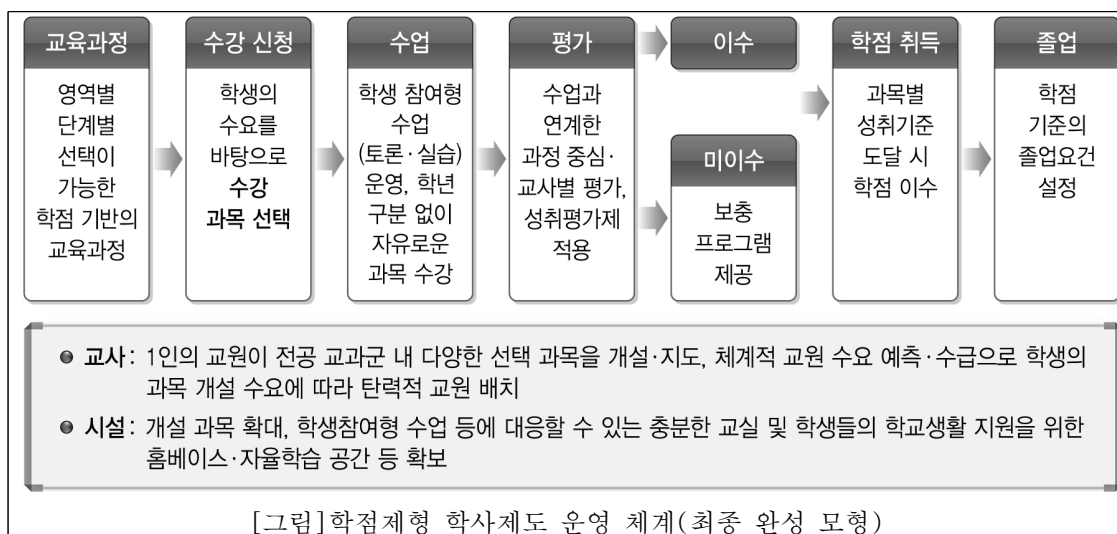
## 2. 학점제 도입 찬성

### 2-1. 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수학습·평가개선 등 고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점제의 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2-2. 학점제 도입 찬성 이유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학점제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며, 학업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점제의 성격은 현재 고등학교가 학생이 등교하는 날짜만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3. 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

### 3-1. 학교 실정에 맞추어 학교 자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수강 신청,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점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일부 과목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3-2. 학점제 실시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

교육과 학습 과정에서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교사별 평가, 성취평가제 적용』을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 도달 시 학점 이수(취득)』하도록 하여 『학점 기준으로 졸업 요건을 설정』하는 학점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앞당겨 실시될 수 있고, 앞당겨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이란 항목에서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이란 목표를 위해,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확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sup>1)</sup>

그런데, 학점제 부분 도입을 2022~2024년에 하고, 학점제 본격 시행은 2025년부터 하겠다는 고교교육 혁신 방안(’18.8.17)은 현 정부가 2017년에 밝힌 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고,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교육 분야에서의 현 정부의 공약을 책임 있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1) 참조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0쪽 내용.

3-3. 미이수자 대책은 학생 수준과 학교 상황에 맞추어 학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에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여 성취 목표 달성 30% 이하를 미이수로 하든지 20% 이하를 미이수로 하든지 미이수 수준은 학교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미이수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이수자들에게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수로 인정받은 과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충 프로그램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는 학점 미취득으로 하여, 학점 기준의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졸업 하지 못하고, 학교를 더 다니면서 최소 학점을 획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 중심의 학업에 취미가 없거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처지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의 폭을 넓히고, 졸업 최소 학점을 적절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늦은 지각을 자주하면서 수업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만 하면, 과목이 요구하는 성취 수준과 관련 없이 졸업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4. 공부하는 학교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교는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학교생활이 싫지만 졸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하루 4시간 정도 나름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하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3년을 지내고 졸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업 시간에 의례히 잠을 자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생활을 하고, 평가에서 아무렇게나 답을 하는 태도는 해당 학생의 미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작은 범위에서라도, 낮은 수준에서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학창 생활을 보내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고교 시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점제 도입과 실시는 이러한 학교 변화의 계기로 작용해야 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카톡에서 한 선생님은

“교육과정 연구나 교육정책 기획자들은 새로운 큰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하지만 교육은 새 터에 새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헌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 연구를 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부터 고쳐가야 하는데, 연구자들은 새 집 설계에만 관심을 기울이니, 번번이 모두 불안해하고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 동안 당위적 접근해서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로 입니

다.”라는 의견을 말하였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도 많고, 평가에서 일자로 표시하는 학생들도 흔히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종종 나옵니다. 아마도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이 힘들고, 인간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육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가급적 조속히 진행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문에서 인용한 ‘<참고자료 1>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 해설’ 중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임.

이 제도는 학생들의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수학습·평가개선 등 고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함.』

라는 서술은

『고교학점제는 학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임.

이 제도는 학생들의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수학습·평가개선 등 고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 과정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로 수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보론] 적어도 2030년안에는 고등학교 재이수제도 연구나 학교현장 도입을 반대합니다.

곽동찬 (서울 효문고등학교)

‘평가에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여 일정한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과목은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핵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육현실에서 2030년 안에 재이수제를 연구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합니다.

첫째, 재이수제는 고교교육이 대학입시제도에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일정한 완결구조를 갖고 있고 대학진학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처럼 고교교육이 대학입시제도에 상대적으로 종속되어 일정한 완결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며, 대학진학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또한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즉 고교교육이 제도교육에서 마지막 단계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고교 졸업 이후 이른바 일정한 기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할 기회가 없으므로, 고교교육에서 일정한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교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 하므로, 대학이 부족한 ‘학업성취’를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학생들의 수업시간은 양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수위를 다룹니다. 수업시간이 부족해서 이른바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수업방식 또는 학생들 학업의지 부족 등 다른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업시간 연장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셋째, 재이수제도는 필연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국가적인 재앙에 이를 정도인 우리나라에서 한창 혈기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학업낙오자’로 낙인을 찍고 다른 학생들과 달리 재이수를 받게 한다면, 이들 학생들은 학업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우려할 만한 ‘다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일탈행동이라는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재이수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절실히 원하는 제도인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재이수제도를 환영하기는 커녕 재이수제도 반대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며, 제2의 미투운동, 제2의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제2의 촛불집회로 대규모 재이수제도 반대 고교학생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재이수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평준화 이전에 우리나라는 성적에 의거한 학년 유급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평준화 이후에 유급제도는 사라진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졸업정원제가 도입되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재이수제도나 졸업요건을 엄격하게 할 곳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졸업정원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시켜 놓고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고등학교에 재이수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재이수제도의 도입이 급한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필수조건인 내신성취평가

제나 교사 자율평가권의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합니다. 교육정책연구자나 교육행정가는 총론의 관념적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총론에 들어갈 모든 각론을 관념적으로 완성시켜놓고서야 현실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재이수제도라는 각론은 일단 연구대상에서도 제외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성공에 사활적 관건인 내신 평가제도와 교사 평가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재이수제는 고교학점제의 필수요건인데 어떻게 연구를 안 하겠는가?'  
제 답은 이렇습니다. '굴이 회수를 건너면 자칫하면 탕자가 됩니다. 고교학점제 간판을 바꾸십시오! 간판이름을 새로 짓고 한국고교교육의 핵심 문제를 먼저 연구하고 해결하십시오!'

## ‘고교학점제 10년 플랜’ 합의를 제안하며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정 빈

첫 번째로 김응현 장학사가 발표한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에서는, 고교학점제는 ‘연기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부가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22~’24년)”, “본격 시행(’25년)”이라고 표현한 것을 각각 “제도적 전면 도입(’22~’24년)”, “제도 완성 및 시행(’25년)”이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 고교학점제 및 그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그 연장선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역별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두 번째로 진동섭 이사가 발표한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서는, 학점제가 부분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정책이 아닌 “고교교육 정상화 내지는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와 교육혁신에 대한 비전 제시, 교육청의 역할과 위상 강화, 내신 평가 및 수능 제도 등 대입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고교학점제 및 대입 제도 개선 등의 현안을 다룰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각 발표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난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부의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2년 제도 부분 도입과 충분한 준비 거쳐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교육부, 2018)이라는 발표 문구대로라면, 교육부의 실천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고교학점제 ‘연기’로 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이번 발표(2018)는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교육부의 발표(2018)는 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차기정권’으로 넘김으로써 그 실천의지가 의심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발표(교육부, 2017)에서는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라 할 수 있는 ’22년에 학점제 “도입”을 천명한 상황에서, 특별한 소통·공감과정 없이 갑자기 “학점제 ’22년 부분 도입 - ’25년 본격 시행”이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전체적으로

‘후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이러한 새로운 로드맵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25년 본격 시행을 위한 그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향후 7년간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자유학기제' 사례를 예로 들면, 2013년에 처음 발표할 때 2016년 전면 시행까지 참여 학교 수의 연차적인 확대 방안을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공감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판적 논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의 실행 의지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사실이다.

셋째, 이번 교육부 발표는 '수능 확대'를 기본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밝히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고교학점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학생부 중심 전형'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거꾸로 대입제도의 기초를 '수능 중심 전형' 확대로 잡은 연장선에서 이러한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고교학점제를 도입.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대입제도 방안이 고교학점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고교학점제의 실행 의지를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2022년에 학점제가 '제도'로서는 도입된다고 하는 교육부의 해명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교육부가 거듭 언급하였듯이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입각하여 '2022학년'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연차적인 확대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미 발표된 '거시적인' 3단계 로드맵 외에 각 항목별 연차적인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1단계(~'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은, '22년에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점층적으로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 시범학교의 수를 확대하는 계획을 밝히고, 이와 함께 각 시범학교에 홈페이지 구축 등 필요 공간 확보 및 교.강사 수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단계('22~'24년)는 이러한 1단계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을 위한 단계이며, 3단계(~'25년)는 "새 교육과정 적용 및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 전 과목 확대 등 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을 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적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와 연계된 대입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향한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성격은 이러한 ‘학생부 중심’ 대입 체제를 전제로 소위 ‘패자부활전(second chance)’ 시험임을 분명히 하고, 그 전형 비율을 예컨대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교교육과정이 입시에 의해 휘둘리고 왜곡되는 그간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 고교학점제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글 말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셋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고교학점제 10년 플랜’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고 이에 따른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공론의 과정은 고교학점제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부 또는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1단계를 시작하는 ’18년부터, 학점제를 본격 시행하는 ’25년 고1학생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27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미세조정(tuning)은 가능해도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이 학점제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1997)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천명한 이래 2009개정과 2015개정 등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줄곧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학생 선택 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학점제를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학점제가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학점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의 보다 바람직한 상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면’ 개정은 필요할지 몰라도 학점제 도입만을 위한다면 그런 ‘전면’ 개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자칫 이러한 특별한 교육과정 ‘전면개정’ 주장이 고교학점제 시행을 ‘연기’하는 ‘핑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경계하고자 한다.

미래의 계획은 오늘의 준비와 실천이 그 실현을 담보한다. 고교학점제 실행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지만, 실행의지만 있다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의 준비와 실천에 대해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 고교 교육과정 이수 및 학생평가 제도 등 변천과정

교육과정	이수제도	학생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
제2차 (1963)	[단위제] (준학점제)  문·이과 분반	(대입반영×)	[본고사] 대입예비고사 (1969)	[2유형고교체제] 인문계 실업계
제3차 (1974)				[고교평준화] (1974)
제4차 (1981)		[상대평가]	[대입학력고사] (1982)	[3유형고교체제]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제5차 (1988)				
제6차 (1992)				
제7차 (1997)	엄격한 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서술형평가) [석차9등급제] (2005)	통합교과형논술 (2008)	
2009 개정	[학점제(2009)] 진로집중과정	[성취평가제] (2011)	EBS 연계 수능 (2011)	[4유형고교체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2015 개정	문이과통합형 과목선택권 보장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과정중심평가)	[학생부 중심 전형]  [수능절대평가] 한국사(2017) 영어(2018)	[교과중점학교]
		[고교학점제] (2022)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 김정빈 외(2017), 52쪽에서 인용

## <참고문헌>

- 김정빈(2014). 일반고 살리기 해법의 방향.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제4회 2030 교육비전 원탁 회의(2014.08.07.), 21세기교육연구소.
- 김정빈(2017a). 성장평가 중심의 대입제도 방안을 위한 소고.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2017-1(통권 제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정빈(2017b). 고교학점제 및 성장평가 중심 대입제도 방안 탐색. *국회토론회*.
- 김정빈·김수영(2015).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김정빈·김수영·노혜정(2016). 일반고 중심의 평등한 고교체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김정빈·김수영·함영기(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